

장기전략리서치부  
미래산업팀

## 뉴스클리핑

분야	내용
부동산	<p><b>금융사, 아마존 물류센터 투자 '붐물'</b> (한국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초부터 지금까지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 아마존 물류센터에 투자한 금액은 약 7,200억원</li> <li>아마존 물류센터 자산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리츠 종목도 상장 예정</li> </ul>
인프라	<p><b>2050년 세계 수소시장 3,000조...韓 기업들 전방위 투자 확대</b> (파이낸셜뉴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수소가 2050년 세계 에너지 수요량의 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li> <li>2050년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이 연간 3,00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li> </ul>
벤처캐피탈	<p><b>오픈도어, SPAC과 합병 논의</b> (iBuyer Opendoor eyes \$5B IPO via blank-check firm, The Real De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의 프롭테크 유니콘 '오픈도어'가 SPAC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을 논의 중</li> <li>오픈도어와 SPAC의 인수합병 규모는 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li> </ul>
인수합병	<p><b>길리어드, 항암제 제조사 이뮤노메딕스 인수</b> (Gilead to acquire Immunomedics for \$21 billion, CN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리어드가 유방암 치료제 개발 업체인 이뮤노메딕스를 210억 달러에 인수</li> <li>길리어드는 이뮤노메딕스의 주가에 108%의 프리미엄을 더한 주당 88달러에 발행주식 전체를 매입하기로 합의</li> </ul>
기타	<p><b>워런 버핏,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스노우플레이크에 대규모 투자</b> (Go ahead and call Warren Buffett a snowflake, The Economic Tim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례적인 공모주 투자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스노우플레이크에 2억5,000만 달러 투자</li> <li>기업공개(IPO) 이후에도 추가로 3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총 6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li> </ul>

### Benchmark 모니터링

(단위: %)

구분	BM	상승률					
		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YTD
부동산	FTSE EPRA/NAREIT Global REITs Index (TR)	1.5	2.2	0.1	21.5	-15.7	-17.9
인프라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TR)	0.9	-1.7	1.1	27.9	-9.4	-15.6
프라이빗 에쿼티	S&P Listed Private Equity Index (TR)	0.1	-1.4	2.3	36.1	-4.7	-12.2
헤지펀드	Hedge Fund Research Global Hedge Fund Index	0.3	0.7	3.6	7.5	4.6	1.6
원자재	S&P GSCI Index (TR)	0.3	-3.4	4.1	4.3	-34.1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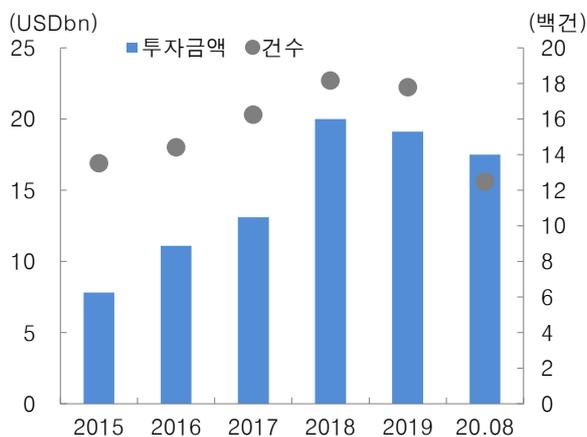
주: 2020.09.15 기준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코로나를 기회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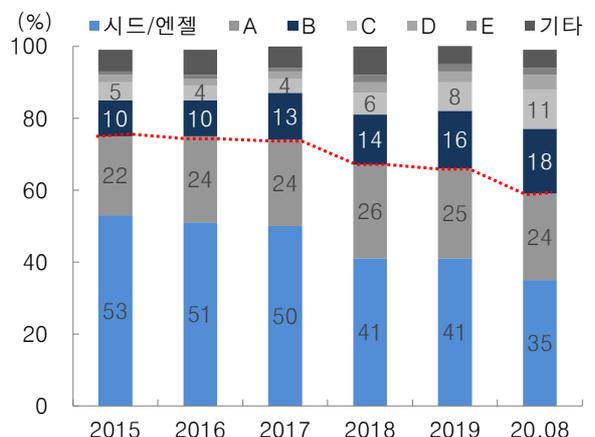
- 전례없는 감염병 위기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의료 서비스, 제약업 등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기존 헬스케어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등장하고 있다.
- 디지털 헬스케어 벤처 투자 금액은 2018년 200억 달러, 2019년 19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0년 8월까지 175억 달러로 역대 최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투자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늘었는데, 기존 의료기관이나 헬스케어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디지털 헬스케어가 수행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진단 키트, 원격의료, 가정 내 건강관리 등의 수요가 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벤처 투자의 평균 딜사이즈는 같은 기간 1억 4,700만 달러 → 1억 6,700만 달러 → 1억 8천만 달러로 증가했고, 투자 단계별로는 시드/엔젤 투자 비중이 줄고 시리즈 B 이상 투자 비중은 늘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더 안전한 투자 대상을 선호한 결과임과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 이에 따라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 회수(exit)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IPO는 2018년 13건, 2019년 17건으로 증가했다. 올 해에는 지금까지 10개 기업이 상장을 완료했고 연내 3~4건의 추가 상장 가능성이 있을 예정이다.

그림 1.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벤처 투자 금액, 역대 최다 수준



자료: CB Insight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시리즈 B 이상 투자 비중 증가



자료: CB Insight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올 해 상장한 기업 중에는 생명공학 기업을 대상으로 분자 시뮬레이션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미국의 Schrodinger가 주가 상승률 200%를 넘는 등 공모가를 상회하고 있는 기업이 7곳이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수요자 대상으로 건강 관리 및 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정보를 관리하고 신약 개발/임상 의사 결정 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많았다.
- 현재 상장 일정이 잡힌 기업들은 주로 원격의료 관련 기업들이다. 비대면 트렌드 확산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를 지나며 대폭 개선되었고 투자자 관심이 급상승하면서 IPO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관련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인지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서 IPO를 활용하고자 한다.
- 특히 코로나 19 확산 이후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Teladoc(TDOC)의 사례가 교과서가 되었다. 시장점유율 75%로 미국 최대의 원격의료 플랫폼으로 꼽히는 Teladoc의 이용자 수는 1Q 누적 204만 명에서 2Q 275만 명으로 35% 늘었고, 주가는 3월 중순 최저 116달러에서 8월 초 52주 최고가인 249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표 1. 2020년 상장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주가 상승률

기업	국가	상장일	티커	공모가	현재가	상승률(%)
Schrodinger	미국	2020-02-06	SDGR	\$17.00	\$53.96	217%
Monsenso	덴마크	2020-06-10	CPH:MONSO	DKK 5.3	DKK 16.22	206%
1Life Healthcare	미국	2020-01-31	ONEM	\$14.00	\$27.57	97%
Accolade	미국	2020-07-02	ACCD	\$22.00	\$32.65	48%
Lantern Pharma	미국	2020-06-11	LTRN	\$15.00	\$19.24	28%
Burning Rock Biotech	중국	2020-06-11	BNR	\$16.50	\$20.08	22%
Newtopia	캐나다	2020-05-04	CVE:NEUW	CAD 0.70	CAD 0.85	21%
Genetron Health	중국	2020-06-19	GTH	\$16.00	\$11.75	-27%
GoHealth	미국	2020-07-15	GOCO	\$21.00	\$12.77	-39%
Progenity	미국	2020-06-19	PROG	\$15.00	\$8.92	-41%

주: 현재가는 09.14 기준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미국 대표 원격의료 기업 텔라닥 주가는 코로나 19 이후 큰 폭으로 상승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미국 원격의료 시장점유율 2~4위에 해당하는 MDLive, AmWell, Doctor on Demand 중에서는 가장 먼저 AmWell이 4분기 중 뉴욕 증시 상장 예정이다. 티커는 AMWL, 공모가는 주당 14~16달러 수준으로 최대 5억6천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AmWell은 미국의 민간 의료 보험사 Anthem 및 구글과 협력 관계에 있다. 상장과 동시에 구글이 1억 달러 규모 지분을 취득하고 AmWell은 구글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사 Aetna 및 아마존 클라우드 진영에 속하는 Teledoc과 경쟁 구도를 이룰 수 있는 기업이다. MDLive 역시 2021년 공모 시장 입성을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고, Doctor on Demand는 최근 7,500만 달러의 시리즈 D 투자를 유치했는데 연말까지 IPO 계획을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또다른 원격의료 기업 SOC Telemed는 Healthcare Merger Corp.라는 SPAC과 연내 합병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SOC Telemed는 Teledoc 등 B2C 업체들과는 다른 시장을 타겟으로 한다. 병원 현장의 의료진들과 원거리에 있는 특정 분야 전문 의료진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정 병원에 특화된 원격의료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도 판매한다.
- 중국의 거대 원격의료 플랫폼인 We Doctor 역시 내년 1분기 홍콩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다. 텐센트가 투자한 We Doctor는 2018년 기준 기업가치 55억 달러의 세계 최대 디지털 헬스케어 유니콘으로 원격의료 외에도 질병 진단, 보험, 데이터 관리 등 4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8년 홍콩 증시에 상장한 원격의료 기업 핑안굿닥터가 당시 기업가치 75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이후 상장하는 We Doctor의 가치는 100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원격의료 시스템 완성에 빠질 수 없는 처방약 시장에까지도 IPO 훈풍이 불고 있다. 미국의 처방의약품 가격 비교 앱 GoodRX가 올 해 4분기 상장을 목표로 8월 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대다수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상장 시점까지도 적자 상태인 것과는 달리 GoodRX는 2016년부터 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 원격의료 기업 HeyDoctor를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원격의료와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결합하여 GoodRX의 경쟁사로 떠오른 Hims & Hers는 SPAC 합병을 통한 상장을 모색 중이다.

표 2. 국내외 상장 예정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기업	국가	개요	방식	현재 진행 과정
We Doctor	중국	중국 원격의료 업체	IPO	3분기내 증권신고서 제출 예정
GoodRX	미국	미국내 처방약 가격비교 어플	IPO	8월 말 증권신고서 제출
SOC Telemed	미국	미국 원격의료 업체	SPAC	Healthcare Merger Corp 와 합병 신고서 제출
AmWell	미국	미국 원격의료 업체	IPO	8월 말 증권신고서 제출
뷰노	대한민국	의료 이미지 및 영상판독 AI 솔루션	IPO	상장예비심사청구
오상헬스케어	대한민국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IPO	상장예비심사청구
클리노믹스	대한민국	유전체 검사 및 해독	IPO	상장예비심사청구
미코바이오메드	대한민국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진단키트	IPO	상장심사승인 후 10월 초 상장 예정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의료 체계와 시장의 특징이 미국과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보다는 유전자 분석과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기업들이 공모 시장에 데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K-방역의 1등 공신인 분자진단 기반의 코로나 19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오상헬스케어와 미코바이오메드가 연내 상장을 준비 중이며, 유전체 분석 기업인 클리노믹스, AI 기반 의료 데이터 기업인 뷰노 역시 조만간 상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 연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오상헬스케어는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미국 FDA에서 코로나 19 진단 키트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하며 실적이 대 폭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1996년 설립 이후 당뇨병 진단용 자가혈당측정기와 혈당 측정 바이오센서를 주로 생산해왔으며, 최근 분자진단과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로 사업을 다각화해왔다. 코넥스 상장사인 미코바이오메드 역시 분자진단과 면역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진단 키트를 생산하며 FDA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상황이다. 최근 상장심사승인을 받고 10월 초에 코스닥 이전상장 예정이다.
- 뷰노는 X레이, CT, MRI 등 의료영상 데이터부터 생체신호까지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의 진단을 돕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한 국내 대표 의료 AI 기업이다. X레이 영상을 분석해 의사의 판독을 보조하는 제품인 뷰노메드가 국내 AI 의료기기 중 최초로 식약처 판매허가를 획득했고, 의료진의 음성을 인식하여 판독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서화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했다. 클리노믹스는 유전자 분석 기술 기반의 암 조기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과 약물정보를 제공하는 정밀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며 향후 유전자 가위 등 유전자 치료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
-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이루어져왔지만, 기존 의료 시스템과의 충돌이나 그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시장 확대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 19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헬스케어의 디지털화에 대한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의 인식이 대폭 개선되고 정책적 지원까지 받게되면서 시장 개화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의료의 패러다임에 투자하려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Compliance Notice

---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미래산업팀)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